

□ 연구 논문

#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최은경(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연구원)

## I. 여는 글

최근 심리학에서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던 문화에 대한 개념이 문화심리학이라는 영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먼저 문화심리학과 전통심리학의 관계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용어와 배경, 문화심리학을 상담의 적용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에 문화심리학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Hofstede의 문화지표를 기독교상담에 적용하여 정리하였고,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안의 역동을 통해 문화심리학적 요소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자로서 문화심리학을 받아들이는데 몇 가지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서양인들은 대부분 처음 만나면 “What is your name?”라고 묻는다. 그러나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대체로 이런 질문을 한다. “몇 살이십니까?”, “몇 학년이십니까?”, “무슨 띠이십니까?” “군대는 언제 제대하셨습니까?” 등 단순히 나이를 확인한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다만 얼마라도 연장자가 되려는 욕구가 그 나이의 확인작업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연장자에게 보다 많은 기득권을 주는 보이지 않는 법칙의 작용이 인사문화에서 발견되어진 것일 것이다. 젊은 사람이 환경 속에서 전개하여 가는 생활의 모습이며, 이는 문화를 떠나서 이해될 수 없다.<sup>23)</sup> 문화심리학의 부상은 심리학이 지닌 학문적 특성을 확대함으로써 인간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염원에서이며,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소통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 더해 세계화<sup>24)</sup>라는 시대적 추세가 문화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 II. 펴는 글

### 1. 문화심리학의 이해

#### 1) 용어

문화심리학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회심리학 편람 2판에서이다. Shewder는 문화심리학이란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관습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조절하고 표현하고 변형시키고 바꾸어서, 인류의 심리적 단일성보다는 마음, 자기(self), 감정(emotion)에서의 인종적 다양성을 초래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sup>25)</sup> 문화심리학은 심리학과 인류학의 두 가지 다른 지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접근을 계승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과 심리의 발달에 문화(언어, 활동 등)가 지닌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심리현상의 보편성 전제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 들어간 심리학을 구성하려 한다. 인류학에서는 외형적 문화 현상보다 인간의 사고, 인식의 문화 차이를 다루려는 인류학자들<sup>26)</sup>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두 전통은 공통적으로 문화와 인간을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다는 차이를 양적인 차이로서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로 여긴다. 이러한 면에서 문화심리학은 토착심리학과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토착심리학과 차이점으로서 문화심리학은 내부자의 관점과 외부자의 관점을 모두 취한다는 것이다. 즉 토착심리학이 내부자의 입장에서

심리학을 구성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에 비해서, 문화심리학은 이들 내부자의 관점을 제3자의 관점에서 재 조망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의 문화적 특수성과 상대적 공통성의 발견에도 관심을 지니고 있다.<sup>27)</sup>

## 2) 배경

현재까지 문화심리학은 ‘문화심리학이 무엇인가?’보다는 전통 심리학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사실상 문화심리학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심리학인가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한 공유된 틀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각기 자신의 시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현대 심리학자의 창시자인 Wundt는 인간의 심리가 역사-문화적 산물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인간의 마음은 역사적 산물로 개인의 의식경험의 연구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여기면서 그의 생애 후반을 인간사회를 이해하는 민족심리학의 탐구에 바치기도 했으나 그 명맥은 끊어지고 뒤이어 실험 심리학 분야만이 발전해 왔다. 1930년대 러시아의 발달심리학자 비고츠키가 인간심리형성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류 심리학자들이 문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또 1950년대에 행동주의에 대한 혁명으로 나타난 인지심리학도 그 본래의 연구대상은 인간의 마음이었으나 발전방향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컴퓨터모델로 기울어져 ‘의미’보다는 ‘정보’, ‘의미의 구성’보다는 ‘정보의 처리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sup>28)</sup> 이같이 대부분의 인식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문화를 보편적 원리의 발견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겼다. 1970년대에 구미제국에서 훈련받은 심리학자들이 영국연방의 구식민지 등에 나가 생활하면서 겪는 문화차이에 학문적 관심을 보였고, 이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문화’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문화가 본질을 구성한다”는 시각을 지닌 문화구성론자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되면서, 문화는 심리를 이해하는 장애물으로써가 아니라 심리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변인으로 대두되게 되었다.<sup>29)</sup> 즉 서구의 심리학 원리가 서구적 한계를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

는 계기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문화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문화를 문화 자체로만이 아닌 사람을 이해하는 적절한 배경으로 보는 시각의 확장일 것이다. 문화심리학에서의 문화는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방식이며,<sup>30)</sup> 따라서 문화는 인간이 행하는 사고와 행위에 대해 적절한 이유(good reasons)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문화심리학은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왜 또는 무슨 이유나 무슨 목적 또는 동기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를 문화를 살아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밝히고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게 되었다.<sup>31)</sup> 최근에는 전통심리학의 대안으로서의 문화심리학을 보면서 여러 영역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지만 해석학적 설명이나 질적 연구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심리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된 비판은 “그것도 과학일 수 있는가?”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된 전제는 아마도 심리학적 방법론이 “실증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거울과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심리학을 과학으로 인정하는데 꺼리고 있는 것 같다.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심리학 그것도 학문인가?”라는 질문이 일반적이었고, 현재의 신설학과들(바둑학과, 경호학과 등)을 학문분야로 인정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처럼, 문화심리학도 학문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열린 자세가 필요하겠다. 또 다른 면으로는 통상적인 심리학의 이해와 구별되고 방법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심리학적 체계로 분류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데 방법론은 문제의식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되는 것”<sup>32)</sup>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현대 심리학이 주되게 사용하는 방법론인 통계학적 절차에 치중하고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위한 이론적 연구가 ‘한국적 심리학하기’에 필요한 요소라고 여겨진다.

### 3) 상담적용

상담은 사람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종합예술이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개인 자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혹은 당면하고 있는 환경,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일 것이다. 최봉영은 ‘문화란 인간이 집단적 생존의 기본단위로서 바람직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나와 세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신념과 실현이라고 했다.’<sup>33)</sup> Hofstede도 문화를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종의 정신프로그램으로 학습되는 것이며, 사람들의 반응 중 가장 일어날 확률이 많은 것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sup>34)</sup> 그러나 이런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상담자, 내담자 일지라도 상이한 문화내적 요소, 배경, 가치관,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sup>35)</sup> 즉 같은 민족, 관습, 전통 등에 있어서 동질집단인 한국인들 간에도 문화내적 요인에서 오는 많은 다른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상담의 전반적인 목표와 상담방법들이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배경과 얼마나 적합한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유교적 집안의 며느리인 내담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시어머니에게 직접 주장하게 한다거나 계속적으로 직면을 훈련한다고 했을 때, 시댁의 유교적인 집안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을 간과하였을 가능성과, 내담자도 어른을 대면하여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버릇없는 자신의 모습에 심한 회의를 갖고 있는데 내담자의 초점이 있다면, 이 또한 내담자 개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담방법이 될 것이다. 즉 상담자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경계할 것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상황과 혼란을 겪는 사람에 대해 위의 예와 같이 일괄적으로 상담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가 유사하더라도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히려 상담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은 집단 내 구성원간의 개별성에 대한 인식을 둔화시키고 내담자의 몰개성화(deindividuation)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작업으로써 외집단(out-group)의 사람뿐만 아니라 내집단(in-group)의 구성원에 대한 인식이 단순화되고 일련의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왜곡된 특성이 거의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할당되는 것을 말한다. 고정관념은 인지적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만 감수성을 둔화시킬 수 있어서 결과적

으로 각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개별화하는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sup>36)</sup> 이는 Wrenn이 말한, 상담자가 “자기 틀에 빠짐(encapsulated)”상태가 되면 세계를 인지하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되고 그 상담자는 수용적인 자세를 상실하고 제 2의 대안적 방법들을 거부하게 된다고 이야기한 바와 일맥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의 배경을 고려하여 개인을 individual-in-context로 보고 내담자를 관찰하는 일이 문화심리학적 접근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 2. 기독교상담적 접근

### 1)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 복음주의기독교상담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할 때, 먼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통해 상담활용에의 영향요인을 조망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Hofstede가 53개국(50개국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4개의 문화차원을 중심으로 하고 상담관계와 관련하여 정리해보겠다.

#### (1) 권력거리

권력거리란 한 나라의 제도나 조직의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37)</sup>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어린이는 자기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다. 아이들끼리도 권위의 순서가 있고 독립적인 행동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 연장자에게는 존경의 예를 표해야 하고 모든 인간 접촉에서 연장자에 대한 일정한 의존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에서는 대체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바로 동등한 존재로 대접을 받는다. 타인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공식적인 존경과 경의의 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립에 대한 욕구는 성인의 정신적 소프트웨어의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로 간주된다.<sup>38)</sup> 한국문화는 대체로 권력거리가 큰 사회의 특징들을 많이 포함하는데,<sup>39)</sup> 예를 들어 어른들의 삶을 통해

쌓여온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과 지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즉 상담 장면에서도 상담자에게서 조언과 방향제시, 필요한 처방들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상담자를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진 슈퍼맨같은 능력과 권위를 가진 어른으로 여기고, 상담자에게 순종하고 존경을 보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바른 정답을 기다릴 수도 있다.

### (2) 개인주의 / 집합주의

먼저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는 개인주의(individualism) 사회,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를 집합주의(collectivism)로 정의할 수 있다. 다른 정의로는, 개인주의란 개인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직속 가족을 돌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집합주의는 태어난 때부터 줄곧 개인이 강하고 단결이 잘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 동안 무조건 내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40)를 가리킨다. 한국문화는 Hofstede의 문화지표에서 43위로 강한 집단주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상담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한국인 내담자는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여기거나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집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어른 중심의 사회는 고민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는 전통적인 방법이 설정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집단의 어른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개별성을 통제하며 의사결정에서도 개인보다는 큰 집단을 의식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경향이 그렇다.

상담 장면에서는 rapport형성에 있어서 한국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조력과정에서 기대되는 내담자의 높은 수준의 개방성, 심리적 세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반면에 상담의 대한 전반적인 내담자의 태도가 독립적이라기보다 상담자에게 의존적일 가능성도 있다.

### (3) 남성적 / 여성적 문화

남녀간의 절대적, 통계적인 생물학적 차이는 공통적이지만 이들의 사회적 역할은 일부만이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남성적, 여성적 문화의 의미는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적 역할들에 대해서이며 이것은 이들이 그 사회의 어떤 관습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Hofstede의 IBM질문지에서는 ‘남성성’의 극과 강하게 상관되는 부분이 수입, 안정, 승진, 도전 영역이었고 이와는 반대로 ‘여성성’의 극과 상관되는 부분은 경영자, 협동, 거주지역, 고용 안정성과 관련이 있었다. 즉 수입과 승진의 중요성은 남성적이고 자기 주장적이며 경쟁적인 사회역할과 일치하고, 경영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여성적이며 주어진 사회 환경 지향의 역할과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한국은 Hofstede의 문화지표 결과 42위로, 문화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경쟁적인 사회 역할보다는 겸손하고 협동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다 여성성이 강조되는 사회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적 배경의 내담자들은 보다 상담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예의롭지 못하다고 여기며 상담의 방향도 화해와 협상에 의한 갈등해결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별히 이들에게는 초기 상담부터 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 (4) 불확실성 회피 / 수용 문화

불확실 회피라는 용어는 미국의 조직사회학자 마아치의 책에서 빌린 것으로 한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참기 힘든 불안을 유발시키는데, 사회에서는 이런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학기술, 법률과 규칙, 종교 등)을 개발해왔다.

한국은 16위로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높은 경향으로 나왔는데, 불확실성 회피경향이 높은 나라는 높은 스트레스와 애매한 상황과 익숙하지 않은 모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규칙이 엄격하고 명료성과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에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낮은 나라에서는 낮은 스트레스와 애매한 상황과 익숙하지 않은 모험에 대해 편하게 느끼며, 규칙과 법률과 보다 포괄적이고 명료성

과 정확성은 학습되어야 한다. 상담장면에서는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대체로 높은 한국인 내담자는 대부분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을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담자는 먼저 상담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상담방향을 미리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에 따른 상담방법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들은 동양인들이 미국인 백인들에 비해 상담을 지시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과정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시적인 상담방법을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sup>41)</sup> 즉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높은 문화에서는 보다 구조화된 상담과정을 선호할 것이고 정보와 조언 등을 통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지시적인 상담방법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 2) 상담자-내담자 관계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안에서 창조하시고 사회안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셨다. 실제로 인간관계안에서 상처받은 부분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결국엔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치유될 수 있다. 여기서의 건강한 관계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체함과 더불어 인간과의 관계체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의 Hofstede의 연구에서처럼 여성성이 강한 문화적 바탕으로 인해 보다 관계를 중요시하여 왔다. 가족간의 혹은 지역간의 등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통한 힘의 발휘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즉 한국기독교상담에서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전제되어야 하며, 여기서의 이 관계는 내담자와 하나님의 관계, 내담자와 가족간의 관계, 내담자와 주변인의 관계, 내담자와 상담자와 관계 등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사회에서 상처받은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교정적 정서체함을 통해 많은 치료적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 문화의 토대에서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인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에는 무엇보다도 효(孝)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우리 사회서는 부모를 따르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여기듯, 부모 또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존재

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 저변에 깔려있는 이러한 의식 때문에 내담자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자를 대등한 관계의 전문적으로 보기보다 어른과 같은 윗사람으로 여기며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짙다.<sup>42)</sup> 이에 대한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가족중심의 다양한 문화를 이루었고, 유교에서 인(仁)의 실천적 차원인 예(禮)에서의 중심개념 효(孝)를 중요하게 여기며 바로 여기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기본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이렇듯 이런 문화배경에서의 상담자-내담자의 관계는 서양에서보다는 정(情)과 도리를 바탕으로 한 상담관계로서의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장성숙교수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교정적 정서체험이 가능하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내담자가 제대로 처신하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어른으로서의 양육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부모-자식간의 본유적 가치에 대해 눈뜨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했다.<sup>43)</sup> 즉 상담자는 제2의 부모로서 일찍이 부모가 했어야 할 지도편달을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상관계이론에서 Winnicott<sup>44)</sup>의 good enough mother<sup>45)</sup>역할과 흡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발달초기의 성장에 실패한 환자의 자기는 분석가의 신뢰성, 주의 깊음, 수용성, 기억, 인내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성장하게 되고, 특별히 환자가 환경적 요소들을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분석가는 기다릴 수 있어 한다(분석가의 신뢰성, 전문적 환경과 관련). 왜냐하면 환자는 자신을 유아기동안 어머니의 돌봄 안에서 이런 신뢰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Winnicott은 정신분석 치료를 환자의 심층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환자에게 잃어버린 돌봄을 제공하고 초기의 발달적 욕구를 채워주는 과정으로 이해했으며,<sup>46)</sup>분석 기능은 부모가 아이에게 주지 못했던 충분히 좋은 환경을 다시 제공해주고, 특히 분석가의 인격적 요소와 분석 상황은 환자에게 ‘안아주는’<sup>47)</sup>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Kohut<sup>48)</sup>의 분석가의 안정적 역할에서 이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Kohut은 분석가가 환자의 욕동과 방어 과정을 해석하는 중립

적인 관찰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분석상황을 분석가의 참여가 요청되는 대인 관계적 장(interpersonal field)으로 이해했다. Kohut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심리학은 기본적으로 분석가에게 공감적이고 자기성찰적인 관찰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분석상황에서 분석가는 하나의 심리학적 장(psychological field)이 된다.” 더 나아가 Kohut은 분석가가 환자의 안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분석가와와의 안정적인관계는 과거에 자기대상 관계의 실패로 인해 좌절되었던 환자의 발달과정을 회복시켜주고, 결국 환자는 분석가의 점진적인 공감적 실패를 통해 진이 안에 담긴 자기애적 특징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즉 환자는 자신과 분석가 모두를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자신을 반영해주는, 이상화된 분석가 없이도 자신의 야망과 이상을 형성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교수의 주장처럼 제2부모 역할을 하는 상담자-안아 주기를 실천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상당부분의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며, 특별히 한국적인 문화배경에서는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 이리라 본다. 결국은 이 두 문화가 만나서 일어나는 새로운 역동이란 실로 제4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거대하다.<sup>49)</sup> 지금까지는 상담효율성에 대한 논의 안에 내담자-상담자의 관계와 역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었는데 앞으로는 이 관계적 동맹 안에서 문화라는 코드로 접근하는 연구가 참으로 절실하리라 여겨진다. 여기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상담자-내담자의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일 것이다. 기독교상담에는 상담자, 내담자, 성령이 항상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바른 상담이라고 한다.<sup>50)</sup> 엄밀히 말하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해 제2의 부모를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부모의 경험을 넘어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며, 상담자는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적 문화배경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해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경험을 한다고 해서 내담자의 인지적·정서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 기에는 무리이고, 장교수가 주장하는 것도 그런 한국 문화적 인식

과 더불어 하나의 상담방법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진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상담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인간의 본질적인 죄 된 본성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 하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보다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 3) 상담가의 제한점

#### (1) 자문화중심주의

자문화중심주의란 자신의 문화, 민족 혹은 인종 집단에서 나온 일련의 가치 및 세계관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주요한 특징인 심리학적 현상이다.<sup>51)</sup> 인생 경험을 인식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행동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문화, 민족 혹은 인종 집단에서 자문화중심주의가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환경에서 사회화되기 마련이고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자문화중심주의적인 성향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대체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자신과 다른 문화적 집단에 대해 자신과 같게 해석하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가정하는 경우<sup>52)</sup>라고 보여 진다. 즉 일종의 개념적 편견이다. 자문화중심주의가 상담 장면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상담가가 내담자의 걱정 및 욕구를 판단하는데 있어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특정 문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이론에 의존할 때이다. 둘째는 내담자의 문화적 가치, 태도 및 세계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은 채 상담전략 계획을 실행할 때이다. 예를 들면, 믿음이 어린 일반대학교 대학생이 학교 술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상담자가 특정 문화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즉 상담자의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하여 내담자의 고민은 믿음 없는 일이고 크리스천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상담을 진행시킨다면, 내담자와의 rapport가 형성되기 어렵고 또한 내담자의 가치, 태도, 세계관에 민감하지 않은 채 상담자 본인의 자문화중심에 따라 상황을 해석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자문화중심적

생각과 감정이 문화적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편견, 선입관 및 선호도 등을 완전하게 떼어놓을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 두고 상담가는 자신의 자문화 중심주의적 편견이 내담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상담가는 자문화중심주의에 대해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기독교문화 안에 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즉 내담자와 관계형성이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 먼저 자신의 편견으로 내담자를 해석하지 않도록 내담자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2) 문화 상대주의

인간의 가치나 윤리 도덕은 그가 성장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는 상대주의적 시각과 태도가 필요하다. 문화는 그 집단이 처해있는 특수한 환경과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화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상담장면에서 문제해석이나 진단을 할 때에 내담자의 그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sup>53)</sup>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자로서 제한점이 있는데 모든 내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들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를 수용할 수는 없다. 특별히 비크리스천의 내담자라면 더욱 그러하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내담자의 시각을 바꿔주는 데에는 기독교상담적 요소가 없이도 일반 심리학의 도움으로 그들의 불편한 증상들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는 있다. 이것은 일반 상담과 기독교상담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복음 없는 문제 해결은 일시적인 증상완화일 뿐이고 단순한 자아실현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관점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는 즉 Lordship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돕는 역할이 기독교상담자의 역할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 Ⅲ. 닫는 글

요약하면 기독교상담자로서 문화심리학을 받아들이는데 먼저 자문화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나 내담자와 다른 문화에 대해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내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들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세속적 문화를 수용할 수는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들에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상담을 이끌어가는 것이 문화심리학을 적용하는 기독교상담자로서 바른 자세일 것이다. 문화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다문화적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Ivey는 제4의 세력이라고 했다. 이런 접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의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치료에 접근하는 것일 것이다. 더불어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도 고유한 개인 특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들 두 동맹관계의 역동 즉 내담자, 상담자의 문화배경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것이다. 필자는 아직까지 기독교상담계에 다문화적 상담이 인식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여기는바 이를 위한 바른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자들이 생기고, 특별히 한국적 상황과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을 위한 바른 체계적 정립이 필요하리라 본다.

\* 후 주 \*

1) Jerome S. Bruner,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79.

2) 최상진·한규석,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2000. 2): 124. 이전 제국주의 시대의 문화 간 교류가 총칼을 앞세워 무력으로 성립된 주종의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교류는 일방적이었다면 오늘날의 문화교류형태는 일방적 강요보다는 자기 욕구에 기초한 상호선택과 상호 수용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품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국 문화는 물론 상대 문

화의 이해와 수용은 상호의존적 배경을 업고 심리학에서도 문화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3) Richard A. Shweder, *"What is it?" 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5.

4) Strauss, Shweder 등이 인간의 사고, 인식의 문화 차이를 다루는 인류학자들이다..

5) 한규석, “한국인의 특징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조명,” 「한국문화와 상담관계 재조명」 제4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2003): 29-30.

6) Bruner, 10.

7) 최상진, 한규석, 112.

8) Jerome S. Bruner, *Do We "Acquire" Culture or Vice Versa?*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6 (1993): 516.

9) 최상진, 한규석,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1998): 88.

10) 김정운, 한성열,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1998): 109-112.

11) 최봉영, 「한국문화의 성격」 (서울: 사계절, 1997), 112.

12) Hofstede. G.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1991. 차재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 1998.

13) 이를 고려하여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적 배경,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에 있어서 다른 상담관계를 다문화적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범문화적 상담(cross-cultural counseling)이 있는데 이는 두 집단 즉, 한 사회의 다수 또는 주류(majority)집단과 인종이나 민족적으로 소수 또는 비주류(minority) 집단간의 비교를 의미한다.

14) 강진령, “한국문화에서 상담활용의 비교문화적 관점,” 「한국문화와 상담관계 재조명」 제4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2003): 20-21.

15) Hofstede, 54.

16) Hofstede, 60-61.

17) Hofstede가 제시한 문화지표에서는 한국이 53개국 중 27위로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18) Hofstede, 83-84.

19) 장성숙, “한국문화와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문화와 상담관계 재조명」 제4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2003): 15.

20) 장성숙, 61.

21) 장성숙, 58.

22)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위니콧” 참조, (2003년 11월 11일).

23) 유아에게 최적의 편안함과 위안을 주는 어머니, 즉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어머니를 뜻한다. 그런 어머니는 아기의 공생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가 “몸짓”을 통해 신체 자기를 형성하는 과정을 돕고, 진정되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 이로서 유아는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고(전능감을 경험 함으로) 자신이 창조적일 수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발달시킨다.

24) Jay R. Greenberg & Stephen R. Mitchell.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이재훈 역,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322.

25) “안아주기”란 의존상태의 유아가 필요로 하는 촉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모성적 제공을 말한다. 안아주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자연스런 돌봄의 기술을 말한다. 이 안아주기를 통해서 유아는 전능성을 경험하는데 위니콧은 이것을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 이것은 얼마동안 유아에게 충분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제공하고 이 안전감을 경험함으로써 얼마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머니의 공감실패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안아주기 어머니 또는 환경적 어머니는 대상 어머니와 다르다. 그가 말하는 대상 어머니는 유아의 대상관계와 자아 조직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 양편 모두에게 대상-지향적인 원본능 만족을 제공해주는 어머니이다. 안아주는 환경은 이 후기 단계 동안에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분리경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안아주는 환경이라는 개념은 규칙적인 면담, 오고가는 의례행동, 깊은 공감, 일관성 있는 목소리 그리고 상담실 안의 물건들, 공간, 분위기의 연속성 자체는 모두 치료 시간에 발생하는 붕괴를 담아주는 은유적 요소들이다.

26) Greenberg & Mitchell, 553-554.

27) 제1세력은 정신 역동적 접근법을 포함한 정신분석과 그에 따른 유사학과, 제2세력은 행동주의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주의치료 기법들을 포함한 행동치료, 합리적 정서치료, 인지치료, 그리고 현실치료 등이며 제3세력은 실존주의적 치료와 인간중심적 치료법을 포함한 실존치료, 인간중심치료 그리고 게슈탈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8)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Grand Rapids: Zondervan, 1995), 6.

29) D. W. Sue, Allen E. Ivey, and Paul B. Pedersen, *A Theor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Therapy* (International Thomson, 1996), 157.

30) Sue, Ivey, and Pedersen, 161.

31) 한국문화인류학편, 「낮은 곳에서 나를 만나다」 (서울: 일조각, 1999), 5-6.